

“고객중심 내부통제 시스템 완비... 신탁업 경쟁력 강화”

신영증권 신임 대표이사에 황성엽 사장 선임

소비자 중심 경영이 성장 비결
회사 ROE 안정적 성과 위해
투자포지션 적극적으로 관리

금융고객 부의 세대 이전 본격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선보일 것

신영증권은 지난 19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황성엽 사장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영증권은 원종석 대표이사 부회장과 황 신임 대표이사 사장의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황 신임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재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자산운용본부장, 법인사업본부장, IB 부부장, 총괄 부사장 등을 지냈다.

황 신임 대표의 취임 소감과 향후 회사 운영방향을 질의응답(Q&A)로 정리했다.

—CEO의 역할은 무엇이고 향후 경영의 주안점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대표이사(CEO)는 커넥팅 이규택터



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사옥. /연합뉴스

브 오피서(Connecting Executive Officer)가 돼야 한다고 본다. 고객과 주주, 임직원을 연결하고 회사 이해관계자, 과거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새로운 관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회사를 독보적인 백년기업으로 성장시키려면 모든 이와 모든 점을 연결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신영증권은 이미 오래전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핵심가치를 선택했다. 나 역시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전반은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 /신영증권

물론 자본시장 역시 난맥상이다.

“뷰카(VUCA: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시대다. 코로나로 촉발된 현 상황이 10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대공황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금융투자업계는 대형 자본금을 가진 증권사의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화로 경쟁 면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신영증권은 1971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견실한 회사이지만 과거의 영화와 전통에 안주해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 때문에 효율적이면서

도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만큼 열정이 가득한 조직을 만드는 일에 힘을 계획이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고 했다. 계기는 달랐지만 위기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따라서 비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합리적 낙관주의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몇 배 더한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위기 앞에서 늘 그려왔던 것처럼 말이다.”

—신영증권의 견조한 성장 비결은 어디 있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신영증권의 성장 비결은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했던 데 있다. 오늘의 모습은 10년 전, 5년 전 계획에 따라 결정하고 실행했던 결과다. 같은 맥락에서 고객,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완비하고, 투자포지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안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기업문화와 조직문화를 활성화하면서 당사가 선도하고 있는 신탁업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다. 아울러 채널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회사의 경쟁력이란 결국 상품과 채널 경쟁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주 고객이 장노년층으로 바뀌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생산연령인구를 주된 고객으로 하는 현행 금융서비스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2030년 장노년인구는 2500만명으로 청중년인구(2100만명)보다 400만명 많고 2차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로 편입이 끝나는 2040년에는 장노년이 2800만명으로 청중년 1700만명보다 1100만명 많아진다. 금융산업의 금융고객 주류가 바뀌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체계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부(富)의 세대 이전이 본격화하는 시대이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국내외를 아우르는 종합자산관리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 독보적인 신탁 서비스를 추구하는 ‘신영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가 그 일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박미경 수습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1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

송파구 +0.31%, 서울 상승 주도
잠실엘스·주공5 호가 1~2억↑
경기·인천지역도 매매가 오름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 예고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송파구 잠실엘스와 잠실주공5단지 호가가 1억~2억원 오르는 등 가격 상승을 주도했고 수도권도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21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19일 기준 서울 아파

트 주간매매가격은 0.1% 상승했다. 6·17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모습이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는 각각 0.15%, 0.09% 올라 상승폭이 모두 커졌다.

경기·인천도 0.1% 올랐고 신도시는 0.03% 상승했다. 특히 송파구는 0.31% 오르며 서울 집값을 주도했다.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에는 잠실스포츠·마이스(MICE) 개발 소식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송파구 다음으로는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포진한 ▲노원

(0.22%) ▲강북(0.16%) ▲금천(0.15%) ▲강동(0.14%) ▲강서(0.14%) ▲관악(0.12%) 등이 뒤를 이었다. 송파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4194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송파구 주요 아파트 별로 살펴보면 잠실엘스(전용면적 84.8㎡)가 지난 18일 19억9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18억원4000만원에 팔렸다. 1개월 동안 호가가 1억500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잠실



서울 집값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예고에도 송파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잠실일대 아파트. /손진영 기자 son@

주공5단지 아파트는 전용면적 76㎡가 21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19억1000만원에 팔린 후 호가가 2억원 넘게 올랐다.

한편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

역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다. 지역별로는 ▲용인(0.15%) ▲군포(0.14%) ▲남양주(0.14%) ▲의왕(0.14%) ▲성남(0.13%) ▲안산(0.13%) 등이 올랐다. /정연우 기자 ywj964@

대신증권, 라임펀드 손실 투자자에 30% 선보상

신뢰 회복 위해 자발적 보상안 확정
소비자 보호 강화 실천 계획 수립도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자발적 보상이나 19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선보상안은 상품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들이 결정한 보상 방안을 참조해 마련됐다. 사적 화해안은 총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 보상한다. 이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뤄진다. 이때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많으면 추가지급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대신증권은 자발적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신뢰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설립 진행 중인 가교 운용사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중에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한다. 금융상품의 도입·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리테일 상품 도입 시에는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하면 상품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상품 도입단계에서는 신설 예정인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한다. 운용사의 제안서, 운용사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운용사 등 급 기준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상품 공급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슈 발생 시 가입 고객에게 해당 펀드에 발생한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박미경 수습기자

상승장 부담, 국내주식형 2.35% 하락

주간펀드동향

최근 이어진 상승흐름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글로벌보다 더 크게 반등했던 한국 증시는 조정을 받았다.

21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주간(6월 12일~18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2.35% 하락했다.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액티브펀드는 1.79%내렸고,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는 2.67%하락했다. 하락장에서는 액티브펀드의 수익률 방어효과가 돋보였다.

설정액은 2811억원 줄었다. 특히 인덱스펀드에서 1828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지수가 하락하자 코스피200 등 지수 추종 상품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0.01% 소폭 내렸다. 지역별로는 브라질(-3.12%), 러시아(-1.89%) 등 신흥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섹터별로는 에너지 섹터(-4.70%)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

설정액은 990억원 줄었다. 중국펀드에서 619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글로벌주식형펀드에서도 279억원 설정액이 감소했다.

해당 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국내 주식형펀드는 ‘신영밸류우선주 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4’로 2.35%를 기록했다. 최근 우선주 이상급 등 현상으로 펀드 수익률이 호조세를 기록했다. 해외주식형에서는 중국주식형인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A’가 3.67% 수익률로 수위를 기록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